

ALEC SOTH

16 July - 29 August 2009

시적 다큐멘터리와 매그넘



Untitled 04, Bogotá, Chromogenic print, 50.8x50.8cm, 2007

알렉 소스(Alec Soth)는 가장 최근 매그넘에 회원이 된 사진작가 중 한명이다. 사실 매그넘이란 단어는 그들이 단 한장의 사진을 통해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현실의 무게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최근 매그넘을 위시한 다큐멘터리 사진이 제공했던 그 충격은 점차 체감하고 있는듯 하다. 이는 전쟁과 분쟁의 비극들 그리고 충격적인 삶의 모습들이 현실적으로는 점차 줄어 들거나 개선되어가고 있는 반면 사람들의 눈은 범람하는 이미지들에 순응하고 무뎠져 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다큐멘터리 사진 대가드의 몽임인 매그넘은 어떤 변화를 제시하고 있을까? 가장 최근 매그넘 회원이 된 알렉 소스의 작업 세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이질 문에 어느 정도는 접근할수 있을 것이다. 알렉 소스의 이번 개인전을 <Dog Days, Bogota>와 <Niagara>라는 두개의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두 시리즈 모두 특정 지역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 지역의 직접적인 기록물은 아니다. 또한 기존의 다큐멘터리가 강조했던 '진실'과 '사건'은 역시 이 두 시리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작가는 하나의 시리즈 형태(monograph)로 만들고 이를 전시하고 책으로 출판한다. 즉 작가는 단 한장의 충격적인 사진을 통해 현실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려는 방식이 아닌, 개별 사진들의 구성을 통해 감정적인 그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 개별적 사진 작업들은 읽어야 할 정보로 충만하지 않으며 또한 복잡한 내러티브의 중첩되어 있지도 않다. 각각의 이미지는 오히려 매우 간결하면서 동시에 함축적이다. 이들은 하난의 의미 단위로 작용하면서 느슨하게 서로 연결되어 전체 구조를 구성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알렉 소스의 작업은 시적 다큐멘터리라는 독특한 평가를 받고 있다. 시적 다큐멘터리, 모순처럼 보이는 이 양식은 기계적 재현의 메커니즘을 통해 사실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다고 믿어졌던 다큐멘터리영화에서도 한나의 중요한 양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적 다큐멘터리 영화의 특징은 시공간의 구체적 현장감이 희미해지며, 시각적 리듬과 공간적 병치라는 패턴이 탐구되며, 설득과 자식전달보다는 분위기와 감정이 중시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알렉 소스의 전시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유의미한 사실일 것이다. 결국 우리가 대상을 기계적 재현할 수 있다는 그 축복받은 능력을 인정할지라도 카메라는 우리의 표현 가능성을 제한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새로운 형식이 창조되고 이는 새로운 표현 방법을 제시한다. 매그넘의 사진은 그들 스스로가 평하는 것처럼 안전지대와 위험지대의 윤리적 거리를 시작적으로 증언해 왔다. 매그넘의 새로운 회원인 알렉소스는 이 두 지대가 더 이상 인간 외부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퍼블릭 아트 성용희 독립큐레이터